

■ 위장병

• 울무씨-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면 좋다. 보통은 껍질이 붙은 채 빵아서 쓰는데, 먼저 주전자에다 물을 넣어 팔팔 끓인 다음 그 속에 의이인 한 줌을 넣고 약한 불로 2~30분 동안 달인 후 그 물을 하루에 몇 차례씩 복용하는 것이다. 또 의이인은 폐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, 위병에 상용하면 그쪽 예방도 된다. 의이인으로 엿을 고아서 쓰면 위를 튼튼하게 해서 식욕을 돕는다고 한다.

• 황련-음건한 뿌리를 3홉의 물로 달여서 1.5홉이 되면 그것을 3회로 나눠서 매 식 후에 마시면 좋다. 복용 시마다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하고, 가장 약효가 좋은 것은 국엽황련이다.

• 호장-가끔 구역질이 나고 아프고 변통이 좋지 않은 만성 위장병에는 음건한 호장을 매일 달여서 한 달쯤 복용하면 효과를 보기 시작하여 석달 후에는 낫는다.

■ 급성위염

• 무우-무우를 강판에 갈아 그 즙을 조식으로 두 번, 다 나올 때까지 식후 50cc 가량 마신다.

• 이질풀-그늘에서 말린 이질풀을 한 움큼씩 35cc의 물에 넣어 물이 절반으로 줄어 들도록 하여 차 대신에 수시로 마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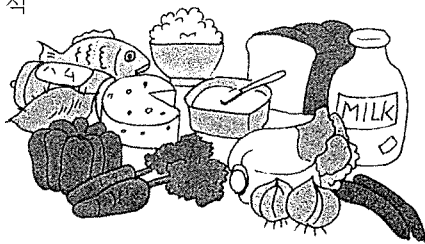
• 민들레 뿌리-꽃이 피기 전에 캐어 말려 잘게 썰은 것

10g을 300cc의 물에 넣고 절반으로 줄어 들 정도로 달여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마신다.

■ 만성위염

• 생강-해묵은 생강을 질남비에 볶아 이것을 다시 약탕관이나 주전자에 물을 넣어 달인다. 얼마간 줄어 들었을 때 정백하지 않은 설탕을 약간 타서 항상 차대신 마신다.

• 외과-생으로 3cm 정도로 잘라 하루 세 번 끼니마다 먹는다. 처음에는 매워서 먹기 힘들지만 2~3일 계속하면 먹기 쉽게 된다.



• 무우-강판에 곱게 갈아서 식사 때 듬뿍 먹는다. 무우 속에 들어 있는 디아스타제에는 소화 작용이 있어 위가 가벼워진다.

• 호장-그늘에서 말린 호장 뿌리를 가볍게 한 줌(약 5g)을 하루 분으로 해서 차 대신 달여 먹으면 차차 위가 회복된다.

■ 위경련

• 달걀 껍질-달걀 껍질을 바삭바삭하게 되도록 불에 구워서 갈아 먹는다.

• 소금물-발작이 일어났을 때 즉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

셔 위 안에 든 것을 토해 낸 다음 하루동안 단식하고 물만 충분히 마신다.

• 당약-당약을 진하게 전초를 달여서 복용하는 것을 옛부터 위통의 묘약으로서 진중하게 여기고 있다.

• 치자-치자를 부수어 물에 담가서 치자물을 만들어 마시면 효과가 있다.

■ 위·십이지궤양

• 감자-날감자를 껍질 채로 갈아 즙을 짜낸다. 그 즙을 식전마다 100cc 정도 마시면 효과가 좋다.

• 사과-4분의 1을 껍질 채 갈아 그 즙을 하루에 서너번 마신다.

• 민들레-민들레의 생잎을 잘 씹어 먹으면 효과적이다. 조리해서 상식해도 좋다.

• 인삼·생강-인삼 3.75g에 생강을 곱게 볶은 다음 1.9g을 섞어서 2홉의 물과 함께 마신다.

• 두릅나무-깊은 산중에 있는 두릅나무의 뿌리를 파내어 두꺼운 껍질을 벗겨 이 껍질만 썰어서 2~3일 동안 말린다. 하루에 껍질 2.25g 감초를 약간 섞어 4홉의 물로 반이 되게 달여서 3~4회 나누어 복용한다. 가끔 구역질을 느끼기도 하므로 식간에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다.

• 결명자-결명자 20g, 방우아 20g을 물 4홉에다 넣어 3홉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 달인 것을 하루 3번에 나누어 역시 식전·공복시에 복용한다. ㉔